좌복 하나도 닳지 못하면 무슨 수좌인가?





그림 · 최문정

천제굴에서 성철 · 법전과 정진
신도들 인법당서 못자게
구들장 파내고 장좌불와
"좌복 하나로 사는 게 수좌야"

혜암은 하안거를 해제한 뒤에도 범어사에 머물며 일타를 가끔 만났다. 24살의 일타는 33살인 자신보다 10여 살 아래였지만 스님이 된 햇수는 비슷했다. 일타가 14세에 어린 나이로 일찍 출가했기 때문이었다.

"혜암스님, 동안거에는 어느 선방으로 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조실 스님께서 창원 성주사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성철 스님을 뵙고 싶기도 하구요. 17살 때 처음으로 선방 안거를 난 송광사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어찌나 말뚝신심이 났던지요. 생식하는 성철 스님께 상추를 뜯어다 드리곤 했지요."

"저도 성철 스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봉암사를 함께 들어간 이후 몇 철을 났지요. 그러고 보니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중답게 생활했던 거 같습니다. 성철스님께선 곧 성주사에서 통영 안정사 뒤 천제굴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저도 동안거는 성철 스님이 계시는 절에서 날 계획입니다."

일타가 혜암에게 은근한 정을 느끼는 이유는 혜암의 은사 인곡 때문이었다. 진주 응석사에 있으면서 해인사 장경각으로 가 7일 용맹정진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곡이 그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던 것이다.

"7일기도하는 동안 인곡 스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공양 때를 잊고 기도하고 있으면 스님께서 올라오시어 제 귀를 잡아당기시곤 했습니다. 스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혜암은 새삼 은사 인곡이 생각났다. 지금도 해인사에 머무시는지, 아니면 다른 절에서 계시는지 알지 못했다. 소문만 듣고는 전쟁 중이라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수좌가 안거를 무시하고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은사 스님께서 청담스님이 계시는 고성 문수암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잠깐 들르신 것인지, 아니면 효봉스님이 계시는 통영 미래사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어서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긴 우리 스님께서는 시봉 잘하려 하지 말고 정진 잘하라고 했습니다. 참선공부 잘하는 것이 참 시봉이라고 저에게 당부하시곤 했습니다."

> "집에서 입고 온 옷 밖으로 자란 팔 자르고 가거라"

"혜암 스님, 성주사로 가 성철 스님 모시고 이번 동안거 납시다."

"좋습니다."

혜암과 일타는 범어사에서 한두 달 더 보냈다. 혜암은 산철이었지만 선방에 들어 정진했고, 일타는 운허의 〈능엄경〉 강의를 계속 들었던 것이다. 초겨울이 되어서야 일타가 먼저 창원 성주사로 떠났다.

그러나 일타는 성주사에서 성철과 짧은 기간밖에 살지 못했다. 성철이 몰려드는 마산 신도들을 피해서 천제굴로 옮겨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범어사에서 늦게 출발한 혜암은 천제굴로 바로 가 1952년 한겨울을 성철의 점검을 받으며 보냈다.

천제굴은 안정사 뒤편의 산자락에 성철이 법전 등과 함께 지은 토굴이었다. 성철이 안정사 산내암자인 은봉암에 머물면서 몇몇 젊은 스님들의 울력으로 조그만 초가를 한 채 지었던 것이다.

온갖 자재를 지게에 지고 옮겼으므로 토굴을 짓는데 울력한 스님들의 고생은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산길도 나 있지 않았으므로 지게질도 수월치 않았다. 성철에게 참선공부를 하러 왔다가 일만 시킨다고 슬그머니 도망치는 스님도 있었다. 토굴만 짓는 게 아니라 산자락에 채소밭도 일궈야 했다.

비구니들은 얼씬도 못했다. 비구니들이 자잘한 일을 도우려 해도 성철은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했다. 성주사에서 10만 배를 하고 성철을 친견한 비구니 혜춘도 천제굴에서 단 하루도 잘 수 없었다. 성철에게 '진짜 중'이 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춘은 밤이 되면 천제굴에서 쫓겨났다.

당시 유일하게 상주하던 비구는 법전이었다. 법전은 봉암사 결사 때부터 성철에게 화두를 받아 정진하던 수좌였다. 법전이 든 화두는 '타사시구자(拖死屍句子)'였다. 직역하자면 '무엇이 네 송장을 끌고 왔는가'였다.

훗날 조계종 11대 종정에 취임하는 법전은 자신의 참선인연을 다음과 술회한 적이 있다.

"나이는 스물넷이지만 참선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 절을 가려면 어린 아이같이 누가 데려다 주어야 갈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은법사(恩法師)가 된 성철은 법전의 단순천진한 성정을 보고 수좌의 기질을 인정했는데, 성철은 평생 동안 수좌들에게 '사람 못된 게 중 되고, 중 못된 게 수좌 된다'고 늘 외쳤던 것이다.

봉암사에 머물며 성철에게 화두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법전은 공양간에서 된장국에 넣을 채소를 탁탁 썰고 있다가 한 경계를 체험했다. 컴컴한 공양간이 갑자기 대명천지처럼 밝아졌던 것이다. 법전은 곧 채소를 썰다 말고 성철을 찾아갔다. 그때 성철은 법전의 지견이 조금 열렸음을 알고 물었다.

"무엇이 니 송장을 끌고 왔는가. 한 마디 일러라."

법전은 대답을 대신해서 오른손 주먹을 번쩍 들어보였다. 그러나 성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시 일러라."

이에 법전은 다시 왼손 주먹을 내밀었지만 성철은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러보그래이."

"아이고, 아이고."

"또 일러보그래이."

마침내 법전은 꽉 막혀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성철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법전을 문밖으로 밀쳐내더니 마루 앞 세숫대야의 물을 법전의 머리에 퍼부었다. 더 공부하라는 채찍질이었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한 법전이 20대 중반에 성철을 만나 참선공부를 한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인연이었다.

"14세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다가 외가가 가까운 백양사 청류암으로 아버지를 따라가 묵담 스님께 맡겨졌어요. 특별히 출가의 동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사주를 보니 절에 보내지 않으면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여 다니던 서당을 그만두고 절밥을 먹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어린 법전은 부모가 그리워 3개월 만에 행자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의 장수를 바라는 부모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시 부모의 설득으로 절에 돌아와 하룻밤을 아버지 팔을 베고 잔 것이 속가와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3년이 지난 후, 청류암을 찾은 아버지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말수가 적은 묵담이 말했다.

"집에서 입고 온 옷 밖으로 자란 팔을 자르고 가거라."

옷 밖으로 나온 팔은 절에서 자란 것이니 잘라놓고 집으로 가라는 묵담의 지시였다. 어린 법전은 주춤거리며 아버지를 따라 갔으나 결국 '팔을 자르고 가라'는 묵담의 지시를 어기지 못했다. 이윽고 어린 법전은 50리 길을 걸어서 영광 불갑사로 가 설제(雪霽)를 은사로, 설호(雪浩)를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법전은 백양사에서 만암(曼庵)에게 비구계를 받고 6.25전쟁이 나기 전에 봉암사로 가 성철을 만난 뒤,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간화선에 구법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바 그때 법전의 나이 24세였었다.

천제굴은 기도처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참선만 하는 선방이었다. 마산과 부산 신도들이 찾아오자 성철은 방편으로 삼천배를 시켰다. 삼천배를 해야만 만나 주었다. 신분의 귀천 없이 모든 신도에게 주는 성철식의 화두 불전삼천배(佛前三千拜)였다.

성철은 법전 못지않게 혜암을 신뢰했다. 법전의 장기가 단순천진이라면 혜암은 강직하고 누구보다 원칙에 충실했다. 혜암이 천제굴 인법당에서 정진하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하나 생겼다. 어느 날 혜암이 법전에게 말했다.

"토굴에 신도들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고 가게 하지는 맙시다."

"삼천배까지 하고 성철스님을 친견하는데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공부하는 데 장애가 생겨 그렇습니다. 법전스님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들이 창고에서 자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인법당에서 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방을 한 칸 달아낼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전은 참자고 했지만 혜암은 무슨 수를 써 돌파하자고 했다. 일을 처리하는데 서로의 성격 차이가 났다.

"성철 스님께서도 신도들이 자고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십니다."

"신도들 대부분은 왔다가도 돌아가는데 일부 맹렬 신도가 문제입니다."

성철도 혜암 이상으로 단호했다. 신도들이 삼천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신도들끼리 마당에서 잡담을 하거나 소리 내어 웃곤 했다. 심지어는 천제굴을 숙박업소처럼 생각하여 하루 이틀 머물다 가려는 신도까지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안거 결제 하루 전 아침 무렵이었다. 찬바람이 잠시 멎고 아침햇살이 제법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법전은 나무하러 산으로 가고 성철과 혜암은 모처럼 마루에 앉아 법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천제굴 창고 앞에 세워진 괭이를 동시에 바라보고는 눈을 맞추었다. 성철이 큰 눈을 더 크게 뜨고는 혜암에게 말했다.

"우리가 인법당을 파버릴까."

"구들장을 들어낸단 말입니까."

"신도가 인법당에서 잘 수 없게 말이야."

"부처님을 모신 방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공부하는 우리가 좋지 뭘 그래. 누울 수 없으니까."

혜암은 곧 일어나서 괭이를 들고 왔다. 그러자 성철이 말했다.

"방 한가운데를 파거래이. 좌복 놓을 자리만 남겨놓고!"

혜암은 한 나절 동안 땀을 흘렸다. 방 한가운데만 파는데도 힘이 들었다. 구들장과 흙을 들어내는데 한 나절이 걸렸던 것이다. 성철은 안정사로 내려가 젊은 스님을 불러와 파낸 흙을 사립문 밖으로 버리게 했다. 성철이 쾌활하게 말했다.

"구들장을 들어냈으니 이제 불을 때지도 못 할거야. 좌복 하나로 사는 것이 수좌이고 참 중이지. 마조대사는 좌복을 일곱 개나 뚫었다고 하지 않은가. 좌복 하나도 닳지 못하고 무슨 수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철과 혜암은 이미 장좌불와를 해온 터라 불편하지 않았다. 구들장을 들어낸 인법당이 오히려 최고의 선방이 되었다. 게다가 불을 때지 않으니 신도들과 객승들이 인법당에 얼씬거리지 못했다. 덕분에 혜암은 얼음장 같은 인법당에서 여법하게 동안거를 났다. 참선의 힘으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건강하게 보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